

<2021년 3월 9일 화요일 새벽, 주 말씀>

1. 하나님이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2.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표상이시다. 그러므로 모두 하나님만 쳐다 보고,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3. 전능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님, 성자는 온전하며 절대적인 존재자이시다.
4. 하나님은 천지와 인류를 창조해 놓으시고 지금까지 아무 흠도 모순도 없이, 또 부족하거나 불필요한 것도 없이, 더할 것도 뺄 것도 없이 그대로 온전하게 행하셨다.
5. 하나님, 성령님, 성자는 항상 온전하게 대하신다.
6.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들에게 온전하게 대하시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대하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은 천지창조를 해 놓으셨지만 사람들이 온전하지 못함으로 결국 아담과 하와는 탈락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었다.
7. 온전히 행해야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을 이룰 수 있다.
8.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온전치 못하게 행한 것은 그냥 지나가지 않으시고, 행해서 온전히 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행한 대로 고통과 형벌을 받고 살도록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9.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주어 지키게 하시고, 지킨 만큼 나타나시며 육도 영도 대해주신다. 그러므로 모두 자기가 지키고 온전하게 하는 대가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천층만층으로 나뉘어

가게 하셨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든지 절대적으로 이와 같이 행하고 계신다.

10. 구약 때 하나님은 사람들이 다시 온전하게 될 때까지 온전하지 못한 것은 형벌 주고, 말씀을 절대 지키도록 행하시며 <1단계 온전>을 이루셨다. 제2차 온전하게 행하는 단계로 하나님은 신약역사에 메시아를 보내서 행하셨고, 온전하게 되기까지 2천년 동안 2단계를 행하셨다.
11. 하나님은 온전하게 한 자만 온전한 하늘나라를 상속받도록 영혼 뿐 아니라 육신의 세계도 그 행위대로 각자 시대별로 대해주셨다.
12. (하나님) 내가 너에게 해주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 법이 그렇게 어렵느냐.
13. 온전해지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하나님은 하나님 차원에서 행하시고 사람은 사람 차원에서 행하는데 왜 못하냐. 할 수 있다. 하나님같이 온전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동쪽으로 가시면 동쪽으로 가고, 서쪽으로 가시면 서쪽으로 가고,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는 것이다. 왜 못하느냐, 할 수 있다. 꼭 행해야 된다.
14. 만일 어떤 산에 제일 귀한 보화가 있다고 하면, 그 보화는 돌이나 나무나 밭이 될 수도 있고, 또 좋은 장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핵>이 되는 것이 있다. 그 산의 핵이 나무라 했을 때, 나무를 캐버리면 그 산은 핵인 나무가 빠졌기에 가치가 없고 쓸쓸한 산이 되고, 나무를 보러 관광을 가던 사람들이 다 안 가버린다. 이와 같이 산에서 핵을 빼다면 그 산의 가치는 땅의 가치밖에 없다. 고로 핵의 값이다.

15. 핵을 모르면 가치를 모른다.
16. 온전하라는 것은 핵이다.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이것이 핵이다.
17. 온전한 삶을 살아라. 그러면 핵을 차지한 것과 똑같다.
18. 온전하면 온전한 것을 준다.
19. (시 18:23) 다윗은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지키며 벗어났다 했다. 그런데 사울은 벗어나지 못했다. 죄에서 벗어나면 의를 따라 의로운 자가 된다.
20. 다윗은 자기가 행한 것을 시편으로 모두 기록했다. 하나님 목전에서 내 손의 깨끗한 대로 내게 갚아주시고 상을 베풀었다고 간증하였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완전하게 하며 그 말씀을 지키게 함으로 완전함을 보이시고 이렇게 저렇게 행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셨다. 그래서 승리하였다.
21. 주는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고,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함을 보이신다. 여기서 ‘주’는 예수님이 아니고 하나님을 말한다. ‘주’라는 말은 주인이다.
22. 하나님은 깨끗이 행하면 깨끗함을 보이시고, 더럽게 행하면 더러운 것을 보이시며, 사특한 자에게는 사특함을 보이신다.
23. ‘사특하다’라는 원어의 의미는 ‘사악하다’, ‘못되고 악하다’ ‘부정하게 행동하다’라고 표현되어 있다. 선생이 사특하다는 의미를 성령께 물어보니, “사울을 사특한 자로 표현했

으니 사특은 사울로 풀면 다 풀다.” 하셨다. 다윗이 어디서 이런 표현을 썼겠냐. 사울 왕한테 늘 쫓기고 항상 고통을 받았던 다윗이 자기 앞에 있는 사울을 보고 쓴 것이다.

24. 사울은 사특의 표상자이고, 다윗은 하나님을 따라 보다 온전한 자의 표상이다.

25. 사울 왕은 그 행위가 정말로 교만하고 거만하고 간교하고 비굴하다. 그리고 한 가지 악이 아니라, 각종 악으로 뒤덮여서 악한 짓을 다 하였다. 하나님은 이를 거스름으로 갚아주셨다. 괴롭게 함으로 불신으로 갚아주셨다.

26. 하나님은 온전하고 완전한 다윗에게는 완전한 것을 보이시고, 사울에게는 그 행위대로 보이는 대로 가게 하셨다.

27. 사울은 의인을 괴롭히는 것만 하였다. 하나님은 의인의 편이니 의인을 괴롭히는 것은 하나님을 사특하게 대하는 거랑 똑같으니, 하나님이 사울에게 거스르게 속상하게 심정 상하게 괴롭게 지옥의 고통으로 갚아줬다는 것이다.

28. ‘온전’은 아주 좋은 핵이다. 온전해야 하나님은 그 좋은 핵으로 대해주고 갚아주신다. 그 핵은 하나님이다.

29. 온전해야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님, 성자를 자기 것으로 되게 대해주신다.

30. 등산하는 자가 정상에 올라가듯이, 온전한 봉을 정복해서 넘어가라! 하면 된다. 온전하게 되도록 자꾸 연습해라.

31. 못한 것은 될 때까지 연습해라. 아직 안된 것은 행하라. 온전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가르쳐주며 할 수 있도록 해주니 행하라.

32. 완전해라. 완전한 자에게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완전함을 보 이신다. 주도 각자 본인이 하는 대로 그에 따라 보여주시고 갚 아주신다.
33. ‘온전’이라는 세계는 굉장히 좋은 단어이며, 엄청나게 좋고 어 마어마한 하나님의 은밀하고 깊은 말씀이다.
34. 하나님은 신약역사 때 제2차 완전한 역사를 펴시고, 3차로 더욱 완전하게 하나님을 절대 사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보이시고,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으로 성서를 풀어내고, 절대적으로 완벽한 말씀을 완벽히 행하라고 주시며 신부급의 역사를 펴셨다.
35. 지금은 하나님의 천주적인 지구역사가 3차 온전에 들어가고 있 다. 이미 천년 역사를 진행하며 완전하게 행하면서 성장했을 때, 완성의 단계에서 휴거 역사가 시작됐다. 그래서 온전하게 함으 로 결국 휴거를 이룬 것이다.
36. 구약 1차원 완전한 역사, 신약 2차원 완전한 역사, 성약 3차원 완전한 역사로 진행하다가 소생급, 장성급, 완성급에서 휴거가 이제 시작됐다. 이번 휴거를 위해서 차원 높이도록 꼭 행하여라.
37. 뜻을 이루는 완전한 하나님 같이 너희도 따라서 행하라.
38. 하나님은 이 세상에 행하는 모든 것들을 더 이상 없게 완전하게 행하시고 계신다. 우리도 검토하고, 또 검토하고, 또 검토하여 하나님처럼 완전해야 된다. 그래야 사고가 나지 않는다. 또한 조 기에 죽지 않고 성공하게 되고, 또 사망으로 가지 않고 멸망으 로 가지 않는다.

39. 온전한 자만 멸망으로 가지 않는다. 온전치 못하고 부분적으로 온전한 자는 완전한 세계를 갈 수가 없고, 그 밑의 단계의 영계로 가고, 육계에도 그 밑의 단계에서 산다.
40. 섭리역사도 보면 하나님은 정말로 완전하게 행하신다.
41. (주일날 말씀해주신 계시의 장면) 부분적인 것들을 모두 완전하게 하라. 들어가는 입구를 완전히 닦아버려라. 그래서 100% 사용하자. 그것만 하면 되니 충분히 할 수 있다. 그 많은 길을 냈는데 그걸 못하냐. 할 수 있다.
42. 완전하게 함으로 휴거 역사에 모두 오르자. 차원 높은 휴거 역사를 이뤄서 하나님께서 또 한 단계 높은 단계로 주시는 것을 받아라.
43. 많은 사람들은 지금 희망이 없이 살고 있는데, 우리는 이 말씀으로 희망을 준 것이다. 이 말씀을 행하면 그 속에 있는 것들을 받는 금년도의 한 해가 된다. 완전하게 행해야 금년도 하나님이 주시고 쓰시고 함께 하는 즐거움에 참여하게 된다.
44. 하나님이 주시는 핵을 받으려면 온전해라. 이는 하나님의 천륜의 법칙이다.
45.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오래 돌아가는 것은 온전하기 때문이고, 온전하기 위해서 계속 역사를 진행해서 자꾸 차원 높여 가고 있다. 그러므로 완전하고 온전해라.
46. 하나님은 온전하지 않으면 온전한 자에게 자꾸 주신다. 온전치 못하면 하나님을 거스르는 행위를 하게 되니 안 주신다.

47. 하나님이 역사를 펴는데 거스르는 행위를 하는 자들은 온전치 못함으로 그들의 행한 대로 계속 갚아주신다. 행한 대로 받기에 자기 소원을 이룰 수가 없다.
48. 사울같이 사특한 짓을 하는 자, 죄악스러운 일을 하는 자, 거스르는 일을 하는 자, 못된 짓을 하는 자, 비굴한 짓을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대로 계속 영원까지 갚아주신다. 이리므로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행하라.
49. 다윗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죄악을 벗어났다 하였다. 이같이 행하니 여호와께서는 의를 따라 갚아주심으로 다윗은 어마한 승리를 이루었고, 사울은 계속해서 그 영혼이 지옥과 멸망의 세계에 살며 불쌍하게 끝나고 말았다.
50. 지금도 하늘나라에 가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섬기고 살며 좋아하며 사랑 받고 살고 있다. 이와 같이 온전하게 하고 안 함에 따라 그렇게 운명이 결정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하도록 말씀 주셨다. 스스로 꼭 하라.
51. 사람들이 일을 해놓고 볼 때도 대개 처음과 중간에는 엄청나게 노력해서 한다. 그대놓고 조금 남은 것을 못하고 가니 찌꺼분하게 돼있다. 모두 행위가 이와 같다. 다른 건 잘하는데 그 몇 가지를 못하니 전체가 찌꺼분하게 돼버리고, 깨끗함과 온전함을 보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꼭 온전히 하라고 말씀을 준다.
52. 온전해라! 완전해라! 항상 말씀한 것을 깨닫고 지켜야 된다.
53. 건강도 부분적으로 하면 안 된다. 건강도 온전하고 완전하게 해라!

54. 말씀을 온전하게 풀어야 온전한 역사를 이루며 간다.
55. 뭐든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다. 사는 것도 자기가 온전한 대로 사는 것이다. 자기가 아는 만큼 살고, 시험을 봐도 자기가 아는 만큼 쓰게 된다. 그래서 답을 쓸 때 완전하게 온전하게 써야 합격이다. 합격을 못 하면 합격할 때까지는 그 세계에서 있는 것이다. 합격하는 사람은 어마어마한 세계에 들어가서 엄청난 급여를 받고 일을 하다. 삶이 다르다.
56.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해야 이익이 되고 손해가 안 가서 기분 나쁘지 않고 좋아 기뻐하며 산다.
57. 온전에 대한 것을 생활하면서 연구해야 된다. ‘아 내가 온전치 못했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며 행해야 한다.
58. 자신을 먼저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라.
59. 자기를 온전한 정신, 온전한 생각, 온전한 마음, 온전한 행실로 만들어라. 그리함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라.
60. 온전하도록 하라. 완전하도록 하라.
61. 온전해라 - 이 말씀은 여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계속 불을 붙여서 각자가 온전, 완전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62. 하는 것도 하나하나 세밀하게 온전하게 해야 된다. 나무를 심을 때 온전하게 완전하게 안 심으면, 나무는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버린다. 나무를 캐 때도 완벽하게 캐오고, 심을 때도 아주 완벽하게 심어야 된다.

63. 생명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올 때도 천천히 뿌리가 많게 잘 끊어서, 정확한 위치에 가져다 좋은 장소에 딱 심어야 된다. 자신의 주관권에 심으면 죽는다. 그래서 전도되었어도 섭리를 나가게 된다. 나부터 온전해야 생명이 살아있다.
64. 생명을 아주 좋은 최고의 옥토 땅, 바로 하나님의 온전한 곳, 그리스도의 옥토 땅에 정확하게 심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 온전한 말씀으로 딱 심어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시원찮아서 어떤 사람은 10년, 15년 됐어도 근본을 잘 모른다. 본인이 온전치 못하니 모르는 것이다. 본인이 먼저 온전해야 된다.
65. 어리든지 크든지 온전히 알아야 그 위력과 권세가 어마어마하고,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온전히 못한 자가 기도하면 잘 안 들어주신다.
66. 온전하게 행해야 좋은 것, 아름다운 것, 이상된 것, 온전한 것이 보인다. 온전하기 전에는 안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행하심이다.
67. 역사도 구약에서 다 밝힐 수 없고, 신약 때도 전체적으로 볼 때 다 온전치 못하니 다 못 보는 것이다. 성약 때는 마지막 때로서 완벽하고 온전하고 절대성으로 행해서 하나님께서 탁 받아서 행하신다. 그래서 휴거 역사, 뜨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다. 그러니 신부들 모두 부분적으로 완전하지 말고 완벽하게 행하라.
68. 하나님은 각자가 행하는 대로 보이시고 역사하시고 사랑도 하신다. 완전한 사랑을 안 하니까 하나님도 완전한 사랑을 안 하신다.

69. 하나님과 주께 맡겨라. 사랑도 몸도 마음도 모두 다 맡겨놓고 하면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고 하시겠냐. 맡기는 것도 온전히 하는 센터 중 하나다.
70. 자기가 하려고 하면 안 된다. 어림도 없다. 하나님의 마음이 상해서 안 해주신다. 하나님은 거스른 자는 거슬림으로 갚아주시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니 안 해주시는 것이다. 결국 거슬림으로 대하고 기분 나쁘게 대하고 끝나버린다.
71. 절대적으로 해야 된다. 절대적인 하나님을 보고, 절대적인 그 날을 보고 “하나님의 세계가 절대적으로 있구나! 정말로 사망과 흑암이 있구나.” 깨달아야 한다.
72. 모두 악평자의 악평 글들을 보지 마라. 보는 사람은 본 대로 하나님이 계속 머리를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신다. 악한 자의 말은 하나만 들어도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괴롭게 갚아주신다.
73. 주와 같이 있던 자들은 악평자들처럼 행하지 않고 절대적으로 움직이니, 계속 즐거워하며 축복을 받고 산다. 이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시대 메시아를 보내서 행하고 있는 일들이다.
74. 선생도 처음에는 이 역사가 너무 어마어마해서 왔다 갔다 했다. ‘정말 사실인가? 역사가 지금 나로 퍼는 것인가?’ 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가 시작됐으니 가서 깨우쳐주라.” 하시며 다른 사람을 통해 말씀하셨다. 모두 이 역사를 정확하게 100% 믿으니까 얼마나 기쁘냐. 지금 천년 역사가 시작돼서 가고 있고, 신부가 되서 가고 있다. 온전히 못한 자는 긴가 민가 한다. 지금 확실하게 역사는 가고 있으니 이를 확실히 믿어라.
75. 역사가 확실히 가고 있으니, 월명동에 하나님의 자연성전을 만들

었다. 역사가 아니었으면 하나님이 절대 만들게 하지 않고, 또 구상도 안 주고 보여주시지도 않았다. 성서에 “하늘의 예루살렘은 땅에 두리라. 여기다 두었노라. 나의 전이다. 보좌니라.” 하신 대로 하나님이 보내준 자가 난 곳에 핵을 차지하게 됐고, 하나님의 궁을 차지하게 됐고, 하나님의 시대 신부들을 차지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있다.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와서 “에덴동산 같다. 이상세계 같다.” 하며 시인하고 있다.

76. 온전치 못하게 믿으면 긴가 민가 보통으로 가게 된다.

77. 정신을 차려라. 정신 차리지 않고 흔들거리며 살면 자격을 상실한다.

78. 하나님은 속상한 것은 그냥 버려버려야 마음이 펴고 좋아하신다. 고로 그러기 전에 정신 바짝 차리고 완전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지금 코로나 기간 때 각자 열심히 자기를 만들고 악착같이 행하여라.

79. 하나님, 성령님, 성자는 영원히 사시니 완전한 자와 살기를 원하신다. 완전하게 돼버리면 바꾸지 않고 영원히 산다. 휴거되면 그와 같이 된다.

80. 자기가 완전하게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이 확실히 보인다. 완전히 행하면 답을 다 아니 어려움이 없다.

<기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들 모두 완전하게 행하게 축복해주시옵소서. 내가 이들을 축복하니 모두 완전하게 행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스스로 묶인 것이 풀려지게 해주시옵소서.

아픈 자, 약한 자 건강케 해주시고, 내가 치료하는 은혜를 주로서 베푸노니 모두 건강해지고, 사탄도 마귀고 흑암도 악한 자도 다 물러가도록 완전하게 행하게 해주시옵소서. 절대 믿고 섬기고 사랑하며 하나님 역사를 믿고 행하게 해주시옵소서. 잘하는 자 축복하오니 더 잘되고 잘 돼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며 기뻐하며 주와 같이 쓰고 먹고 달리며 살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들이 어려움이 없이 잘되고 형통할지어다. 그리고 항상 주와 더불어 행하라. 하나님과 더불어 행하라. 성령과 더불어 행하라. 그렇게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이들을 축복하니 모두 그렇게 될지어다.

성부와 성자 성령이 이들 모든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개 보면 뛰고 달리고 악착같이 하는 자들은 벗어납니다. 힘든 자, 비활성으로 하는 자, 바로 하나님을 섬겨도 그냥 히적부적 섬기고 왔다갔다만 하고 이런 백수 건달식 신앙을 하는 자들, 자기 식으로 하는 자들, 힘이 없어 하는 자들, 어려운 것에 제 때 제대로 못 해서 일어난 사건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다 함께해주시고 내가 기도하오니 풀어놔 사망권에서 생명권에 다니게 해주시옵소서.

각종 병과 아픔에 있는 자들을 내가 기도하여 치료하는 광선을 바르노니 강건해지고 치료될지어다. 사망도 사탄도 없어지고 깨끗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이들에게 온전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모두 잘되고 형통될지어다. 악한 자들, 비굴하게 행하는 사울같이 행하는 자들이 다 스스로 꼬꾸라지고 망하고. 안 됩니다. 의의 승리하며 살게 하나님 축복해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 성령께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